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2월 1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거듭하여 찾아온 병마를 이기도록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신유의 은혜로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우도훈 -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린도전서 1:30,31) 할렐루야!

군 제대를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저는 급성 폐결핵에 걸려 대전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폐결핵과 능막염 등을 앓는 군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마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의무관이 엑스레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오른쪽 폐에 엄지 손톱 크기의 공동이 2개가 생겼으며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집에 가서 치료받으라며 의사가 제대를 권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착잡하고 이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침대에 걸터앉아 상념에 빠졌는데, 환자를 입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 “오늘 저녁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 성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나는 여기 병을 치료하러 왔지, 교회에 가려고 온 것이 아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강제로 끌다시피 하여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들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줄을 몰라 고개 숙인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대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읍내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선생님이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결핵을 치료한 흔적만 있고 지금은 건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뜻밖의 말을 듣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폐에 엄지 손톱 크기의 공동이 2개나 있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의사가 제대를 했는데, 그 사이 제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저는 제대하고 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서 저절로 치료가 되었다 보다 생각하고 있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2005년 9월 말에, 회사 일을 하다가 앉은 자세로 높은 데서 떨어져 요추에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간신히 차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고 핸드폰으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방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간 곳이 산재 병원이었습니다. 우선 복대를 차고 지내며 지켜보자고 하더니 입원한지 3개월이 지나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두말하지 않고 수술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대

교구장님과 교구장님, 교우들이 병원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므로 저는 위로와 힘을 얻고 치료를 잘 받고 앞으로 열심히 주님과 성도님들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듬해 1월에 그 해 첫 수술 환자로 선정되어 수술실로 가기 위해 침상에 누운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2)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멘!” 하고 화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철심을 6개 심고 그 위에 인공뼈나 자가뼈를 이식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인공뼈는 시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하고 자가뼈는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가뼈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왼쪽 고관절 일부를 잘라서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허리보다 뼈를 잘라낸 고관절 부분이 더 통증이 심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 말대로 여러 해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걸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건강 검진에서 위암이 의심되므로 소견서를 써 줄 테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동네 내과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내시경 자료와 조직검사 확인서를 가지고 곧장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암이라고 의심할만한 병변이 없다고 하더니 다시 조직검사를 하고는 암 판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님에게 어떻게 다시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묻자 두 종류의 암이 있다면서, 하나는 혹처럼 위로 자라는 암이고 또 하나는 옆으로 퍼지는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 암으로서 초기이지만 암세포가 옆으로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른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 수술하자고 하였습니다.

연말이라서 이듬해 1월 초에, 암의 위치가 안 좋아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하였고 담석이 있어 동시에 담낭 제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때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빠르게 회복되어 일주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며 수술 전처럼 건강해졌습니다. 다시 일터로 나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 받은 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들었고, 식사 등 여러모로 조심하며 생활하다가 1년째가 되는 날 병원에 가서 피검사, 내시경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위를 절제하고 접합했던 부위에 암세포가 많이 자라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가족들이 서울의 암치료 전문병동이 있는 병원에 가자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은 교구의 한 남성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병원과 담당 교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락하여 진료예약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방문하는 날에 곧바로 내시경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에 수술받은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금식한 후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암 치료 전문 대형병원이라 대기환자가 많고 절차도 복잡한데 스케줄을 조정하여 우선 검사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담당교수님을 처음 만나서 검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는 재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암세포가 자라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옆으로 퍼지는 암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급속도로 퍼져서 위 전체에 암세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1기이지만 개복수술을 통해 위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무서운 암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또 빠르게 검사 받고 수술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치유를 확신하

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수술을 받을 때 동시에 담낭을 제거하면서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도록 연결해 놓은 관에서 담석이 발견되어 수술이 미루어졌습니다. 날짜가 되어 수술 대기실로 가서 짹짹 놀았습니다. 각종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데 그 수가 3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럼 암환자가 많은데 놀랐고, 또 그 많은 환자가 같은 시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위암 센터와 췌장암센터에서 차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과는 달라서 수술 후 회복과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왔습니다. 퇴원하기로 한 날, 위암 수술 부위의 호스를 제거하려고 의료진이 갖은 애를 썼지만 빠지지 않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30분쯤 지나 수술하지 않고 무사히 호스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 후, 이번에는 담관에 연결했던 호스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체면 불구하고 바닥에 누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 호스를 제거한 부위가 붙지 않아서 담즙이 흘러나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응급실에 가서도 통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대기 중인 시간에 누군가가 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도 뜨지 못하고 통증으로 끄꿍 앓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이내 통증이 멈추었습니다. 담관의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기도해 준 분이 마침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에 와있었던 어떤 집사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폐결핵을 앓았을 때도, 그 날 담관이 터져서 사경을 헤매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병마는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서 요양 중에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급히 병원에 가야 했는데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부서의 장로님이 마침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시고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차로 병원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해열제 등의 처방이 듣지 않고 원인 또한 알 수 없어 음압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없는데 그때 감염내과 등 여러 과를 전전하며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고 아내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번에는 혈변이 시작되어 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피의 어떤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혈변으로 피가 부족하여 수혈까지 받았습니다. 비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여 비장 절제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절제 수술 후 저는 폐렴, 내수막염,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를 밤을 지새며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하였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마를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신비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진리교회의 장로가 되어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아멘!

구역공과

제1권 (제6단원 :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36과) 열 두 제자를 파송하심

- 본문 : 마태복음 10:5-15
- 요절 :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10:1)
- 찬송 : 512장(새찬송가 315장), 277장(새찬송가 499장)

예수님은 친히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물을 잡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또 세관에 앉아 사무를 보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제각기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몇 가지의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열 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 먼저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 복음을 이방인보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민족을 차별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도외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마 8:10)을 칭찬하셨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마 15:28), 고침받은 열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감사를 표하려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눅 17:19).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민족적 차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복음 전도의 순서와 경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빛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비취 가듯이, 오늘날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가정과 친척과 이웃에게 먼저 전해져야 함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신 말씀에서도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복음 전도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자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본을 보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약점과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결코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한 반대에 부딪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도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남아있는 불신의 세력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씩 물리치면, 마침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경건한 가정이 이웃과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빨리 복음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웃 사람과 친척을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쓸 것이 없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병들고 귀신들린 자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혼이 병들고 죽은 사람이므로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인생의 목표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꿈도 없이 살아갑니다. 한평생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진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쓸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성도간의 구제를 칭찬하십니다. 비록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아시므로 넘치도록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마 6:3,4).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없는 이웃에게 쓸 것을 나누어 주고, 또한 복음도 나누어 주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 데는 힘쓰면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데 인색한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활동이 복음 전도와 연관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과 함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온전한 구제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까.

3. 전도하면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금과 은은 돈이나 재물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목숨을 위하여 이러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도자가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잘 곳을 걱정하게 되면 복음 전도의 목표가 희미해지고 맙니다.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므로 오직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생활에 소용되는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4.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평안을 빌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평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말로 전도를 했어도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생명력을 잃은 전도가 되고 맙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원래 평안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안녕을 비는 일상적인 인사말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주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룩하신 화해로부터 오는 평안인 까닭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로 임하여 있으므로 복음과 함께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운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